

미국의 철강수입 규제에 대한 독일 현지의 반응

지난 3월 5일, 미국이 철강수입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하여, 독일 정부, 경제계 및 언론계는 일제히 “무역전쟁 선포”라고 하며 문제점과 이의를 강력히 제함. 이에 따른 독일 현지의 반응을 정리하여 보고함.

◇ 주요 자료 / 기사

◆ 미국의 철강수입 규제에 대한 독일 현지의 반응

- 미국의 금번조치가 시행되면 매년 1천만톤의 철강수입 감소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캐나다·멕시코 등 NAFTA 지역을 제외한 EU·한국·일본·러시아 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특히 독일 철강업계는 몇 년 전부터 대외 보호조치 없이 자체적으로 감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슈뢰더 연방총리 및 경제기술부 뮐러 장관은 3월 6일자 성명을 통하여 미국이 내부 철강업계 문제를 독일경제에 전가할 경우 독일/EU 경제에 타격을 줄 우려를 표시
- 독일 경제일간지인 Handelsblatt지 및 독일 전경련은 미국의 철강수입 규제에 대한 논평을 통하여 한국·일본·중국·대만 등 아시아국들은 철강 수출선을 EU로 돌릴 것이며 EU가 이러한 제2 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복관세 등 조치를 취할 경우 모처럼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세계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져들 우려가 있음을 표명
 - 특히 동구권 국가들이 EU 가입을 앞두고 감원 등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EU 수출이 막힘으로써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 (EU는 수입규모를 작년수준인 2,660만톤으로 동결할 가능성) 시사
- 부시 미국 대통령은 국내정치 상황을 이유로 거리낌없이 자유무역 옹호자로서의

명성에 모험을 걸고 보호무역주의를 재촉하고 무역전쟁을 야기하면서 세계 전체를 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은 자유무역 옹호자로서 백악관에 입성한 뒤로, 그 동안 자유무역협정 체결, 도하(Doha)의 WTO 회의에서 신규 세계무역 기준을 관철시키는 등 기여를 하였으나, 이러한 진전이 현재 위기에 처해 있음

□ 미국 철강업계가 고전하고 있는 이유는 수입증가가 아니고 장기간 내부개혁 지체에 따른 경쟁력 약화 때문이며, 따라서 내부개혁이 시급한 데도 부시는 철강업자들에게 대하여 시장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그널을 주지 못하였으며, 이는 다른 산업계에서도 철강업계를 모방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 경기둔화를 가져와 소비자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데, 이는 노동친화적이지도 않고 선거에 유리한 방향도 아님

□ 그런데도 미국은 수입관세를 통하여 철강업이 희생할 수 있고 실업도 줄일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9월 국회 상원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정치 분위기를 관세로 전환하려 한다면 이는 궤변(Trugschluss)에 불과하며, 나아가 EU도 미국의 보호주의에 대항하여 별도의 독자적 노선을 추구하려 들것이며, 이는 여타 경제블럭들에 대하여 하여금 자유무역에 브레이크를 걸고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할 명분을 주어 다시 미국에 부담을 주는 부메랑 효과를 가져올 것임

- 슈뢰더 연방총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입규제는 잘못된 시그널이므로 재고하도록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공식발표하고, 경제기술부 뮐러 장관도 "WTO가 금번 미국의 조치를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

□ 자유무역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 부실한 철강업계의 내부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화하고 위험한 사고인 만큼, 철강업계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이 필요한 바, 그 예로, 실업 노동자들에 대하여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 철강업계의 시급한 과제인 연금문제도 정부의 지원 하에 해결하도록 모색되어야 함. 또한 앞으로 시장 자유화는 보호조치라는 이유로 인하여 방해되어서는 안되며, safe-guard 등 보호조치는 WTO의 천명대로, 오직 분명한 전제조건 하에서 예외적으로만 시행되어야 함

- Handelsblatt지는 safe-guard 조건 불합치의 예로, 미국이 한국산 탄소강관 (Leitungs-rohre) 수입에 대하여 safe-guard를 취하였으나, WTO는 지난 2월 15일 이러한 보호조치는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점을 제시

- 실제로 부시 대통령의 초기 대응방안은 유화적이었으나, 많은 이해집단들을 만족시켜 주는 과정에서 반대방향으로 선회하였는데, 부시 대통령이 자유무역주의 신봉자로 인식되려면 당초 방안을 철강처럼 강력하게(hart wie Stahl) 추진했어야 한다고 논평

<프랑크푸르트 현지사무소>

< 평가 기초 자료 >

1. 사무소명 : 프랑크푸르트사무소
2. 활동구분 : 영업지원활동, 조사활동, 관할지역인사 접촉활동 등
() (○) ()
3. 본점요청 문서번호 : 사무소 자체보고
4. 보고서 평가(관련) 부서 : 국별조사실
5. 보고시한 : -
6. 자료(정보)원 : Handelsblatt, FAZ 등 현지언론 2002. 3. 6일자
7. 입수(접촉) 경로 :
8. 자료수집(접촉)시간 : 1 일
9. 소요경비 :
10. 보고서 작성기간 : 4 시간
11. 기타 평가에 참고할 사항 :